

한국석탑의 세부 명칭과 의미 고찰

A Study on the Name Details and Meaning of Korean Stone Pagoda

천 득 염

Cheon, Deuk-Youm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 지 윤*

Jung, Ji-Youn

(동경대학교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건축학전공 박사과정)

오 창 명

Oh, Chang-Myeong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Abstract

The detailed names and meanings of Korean stone pagodas have not yet been properly studied or clearly defined. Therefore, an aim of this report is to compare the detailed name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one pagodas by focusing on content used previously by Ko and his students and content that is currently in use (i.e.,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Additional objectives are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se names and propose an appropriate detailed draft regarding names of stone pagodas.

The discussion will proceed by dividing the stone pagoda into three parts: the podium, main structure, and finial. First, the content in Luo Zhewen(羅哲文)'s "Ancient pagodas in China(中國古塔)" (1985) is considered; then, "朝鮮의 石塔" (1943)—published b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is explored. The thesis written by Yu-Seop Ko regarding Korea's first stone pagoda and the content in "A Study of Korean Pagodas(朝鮮塔婆의 研究)" (1948), which contains Yu-Seop Ko's posthumous works published in book form by his student Su-Yeong Hwang, Heu-Kyoung Kim are examined. to pagodas that are used today, are compared and reviewed.

Since Korea, China, and Japan influence each other, pagoda-related terms are shared to some extent. In this study, these were applied to stone pagodas, and names used thus far that have not drawn criticism were studied and proposed as suitable alternatives.

주제어 : 한국석탑, 석탑 용어, 석탑 세부 명칭, 석탑 용어 의미, 용어정의

Keywords : Korean stone pagoda, Stone pagoda term, Detailed stone pagoda name, Significance of stone pagoda terms, Terminology definition

1. 서 론 : 한국석탑 세부 명칭 고찰의 의미와 방법¹⁾

* Corresponding Author : jeueney@gmail.com

1) 본고는 한국석탑의 세부 명칭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세 번째 글이다. 첫 번째 글은 2015년 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때 발표한 「韓國石塔 用語定義 試論」인데, 학술발표대회라는 한정된 지면 때문에 축약한 글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논문의 완성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두 번째 글은 2016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한국 석탑 용어 정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국석탑 용어 정의 시론(2)」이고, 본고는 이를 일본문헌과 중국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다. 특히 명칭의 언어학적 해석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학자들이 사용하였던 명칭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 고찰하고자 하였다.

석탑의 나라 한국에서 조영된 수많은 석탑은 중층누 각형의 목조건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석탑의 세부 명칭은 목조건축 용어를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최소 50여 개가 넘는 어려운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파악이나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²⁾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 고찰

2) 이희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건축역사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석탑 용어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등의 일본학자와 한국인 학자 고유섭에 의해서 명명되었고, 이를 고유섭의 제자 황수영과 진홍섭, 그의 영향을 받은 김희경 등이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용되고 있다. 특히 일제 이후 한국의 석탑 연구는 미술사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불교신앙의 성스러운 대상으로서 의미와 조형성이 강조된 나머지 건축적 구조체계를 밝히거나 내재된 원리와 가치를 구명(究明)하는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간 다소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던 석탑의 세부명칭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예를 상호 비교하여 형태와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적절한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중국의 경우 중국의 불탑 연구서인 뤼토펬(羅哲文)의 『中國古塔』³⁾과 장위환(張馭寰)의 『中國佛塔史』⁴⁾에 나타난 내용을 고찰하고, 일본의 경우는 스기야마 노부조가 일제강점기에 출간한 『朝鮮の石塔』⁵⁾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후 한국인 최초의 미술사(석탑) 연구자인 고유섭의 논문,⁶⁾ 고유섭의 유고를 제자인 황수영이 단행본으로 정리한 내용⁷⁾의 순서로 비교 고찰하였다.

더불어 고유섭의 제자로 미술사학자인 진홍섭, 황수영의 지도를 받아 한국미술총서의 일환으로 『한국의 탑』을 쓴 김희경⁸⁾, 한국의 전통건축용어에 대하여 정리한 장기인, 석조미술사학자 박경식⁹⁾, 미술사학자인 강우방과 신용철¹⁰⁾, 한국탑의 상륜부에 관한 연구를 하였던 윤창숙¹¹⁾, 그리고 근자에 불탑 용어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였던 이희봉¹²⁾의 석탑 세부 명칭을 참고하였다. 물론 각 나라 불탑의 양상, 탑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은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비교적 유사하므로 위의 여러 학자들이 사용한 석탑 용어를 상호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일제 이후 그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함은 어느 유구에 비하여 다소 간단해 보이는 석탑이 오히려 복잡하고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으며, 그 어원에 대한 해석이 다름에 유의하여 차제에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차제에 공론화하고 학계에서 용어정의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기를 소망한다. 특히 크게 잘못된 점이 없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용어들은 동의어, 유의어라 하여 정리하고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학계의 공론을 수렴하여 고치거나 폐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기단부(基壇部)의 세부 명칭 고찰

한국석탑에 있어 일반적으로 신라계 석탑일 경우 이중기단, 백제계 석탑일 경우 단층기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상세히 살펴보면 완벽한 이중기단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나 이중기단으로 보이는 초기적 이중기단과 맨 하층에 또 다른 층을 둔 삼중기단의 예도 있고 아예 기단이 없이 암반 위에 서 있는 경우도 있다.¹³⁾

초기적 이중기단의 예는 미륵사지석탑에서 보이는 형식으로 아직 신라석탑의 기단처럼 확실한 이중기단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하층기단의 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계단처럼 여러 단을 쌓아 기단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며, 기단부 외곽에 탑을 보호하기 위한 탑구(塔區)가 설치된 경우 등 다양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2-1. 고유섭과 황수영의 기단부 세부 명칭

고유섭은 『朝鮮塔婆의 研究』에서 나타난 ‘석탑 세부 명칭도’¹⁴⁾에서 기단부를 기단이라고 불렀으며 이 기단을 다시 하단(下壇)과 상단(上壇)으로 나누었는데 현재 통상적으로 부르는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 해당된다. 하단은 아래에서부터 대반석(臺盤石), 저대석(底臺石), 중대석(中臺石), 입석(笠石 혹은 底臺覆石¹⁵⁾)으로 구분하였으며, 상단은 아래에서부터 중대석(中臺石

제19권, 4호, 2010, 56~57쪽; 이희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적 재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05

3) 羅哲文, 『中國古塔』, 中國青年出版社, 1985

4) 張馭寰,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5)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彰國社, 1944

6) 고유섭, 『又玄 高裕燮 全集 3, 朝鮮塔婆의 研究 上』, 열화당, 2010

7) 고유섭, 『韓國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8) 김희경, 『한국의 탑』, 열화당, 1982

9)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10) 강우방·신용철, 『한국미의 재발견 5, 탑』, 숲, 2003

11) 윤창숙, 『문화재해설 : 탑과』, 백산출판사, 1991

12) 이희봉, 앞의 논문, 2010; 이희봉, 앞의 논문, 2010.05

13) 천득염, 「백제계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천득염,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14) 고유섭, 앞의 책, 2010, 317쪽

15) 고유섭, 앞의 책, 2010, 90쪽

혹은 身部), 대관석(臺冠石 혹은 葛石, 上臺覆石¹⁶⁾)이라 하였다. 즉 하단과 상단을 먼저 나눈 뒤 부재 하나 하나를 따로 나누어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는 다소 다르다.

이를 맨 아래 부분부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유섭은 그가 직접 그린 ‘석탑 세부명칭도’에서는 기단부를 하단과 상단으로 구분하였지만 그가 쓴 글에서는 하대(下臺 혹은 底臺)와 상대(上臺)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따라서 일제이후 이 두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유섭이 사용한 하단의 대반석은 후대 학자들이 지대석이라 하였으며,¹⁷⁾ 그 중 황수영은 ‘지대석 아래에 흙을 다져 지내력을 증가시켜주는 지반이 있다’고 하여 지반과 지대석을 구분하였다. 더불어 고유섭은 현재 호칭되는 하대갑석을 입석(笠石)으로 또 상대갑석을 대관석(臺冠石)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가 쓴 글에서는 각각 저대복석(底臺覆石), 상대복석(上臺覆石)으로 표기하여 통일된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중대석을 하대중석 혹은 신부(身部)라 하였고 상대갑석인 대관석을 갈석(葛石)이라 하여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이처럼 고유섭은 상·하대갑석의 명칭을 입석, 대관석(갈석), 복석 등으로 각기 다르게 명명한 것은 주목된다. 하대갑석을 칭하는 입석의 ‘입(笠)’은 ‘삿갓’을 뜻하므로 넓게 덮는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되며, 상대갑석을 칭하는 대관석의 ‘관(冠)’도 ‘갓’을 뜻하므로 중대석에 비해 갓처럼 앞으로 돌출되어 넓게 대를 덮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왜 비슷한 의미를 지닌 갑석을 달리 불렀을까? 아마도 고유섭이 위의 상대갑석은 하단만을 덮는 아래의 하대갑석과는 다르게 기단 전체를 덮는 부분으로 생각하여 이 둘을 다르게 명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단에서 앞에 ‘대(臺)’라는 명칭이 있는 부분은 최하단의 대반석과 최상단의 대관석이 유일한데, 각 부분의 위치와 명칭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고유섭은 기단을 일종의 대라고 생각했으며 맨 하단과 맨 상단은 기단 전체와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여 이 둘의 명칭 앞에 ‘대’를 붙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갑석을 복석이라고 한 것은 갓(冠)이나 삿갓(笠)이 위에 있어 아래 축부를 덮고 있으니 ‘덮다’의 의미를 지닌 복석(覆石)이라고 따로 사용한 것 같다.

표 1. 한국 석탑 기단부 세부명칭 비교

고유섭, 1944이전	황수영(고유섭), 1948, 을유문화사	본고의 명칭, 2017
하단 下壇	대반석 臺盤石	지반 地盤
	저대석 底臺石	지대석 地臺石
기단 基壇	중대석 中臺石	하(저)대저석 (하석) 下(底)臺底石 (下石)
	입석 笠石, 혹은 하대복석 下臺覆石	하(저)대중석 下(底)臺中石
		우 석 (탕 주) 隅石(撐柱)
		탕석 撐石
	면석 面石	하(저)대갑석 (복석) 下(底)臺甲石 (覆石)
	기단부 基壇部	중석받침 (물딩) 中石받침
상단 上壇	중대석 中臺石, 혹은 신부 身部.	상대중석 上臺中石
	대관석 臺冠石, 혹은 갈석 葛石	우 석 (탕 주) 隅石(撐柱)
	상대복석 上臺覆石	탕석 撐石
	면석 面石	상대중석 上臺中石 -우주 隅柱 -탕주 撐柱 -면석 面石
	갑석부연 甲石副緣	갑석부연 甲石副緣 (副椽)
	상대갑석 上臺甲石	상대갑석 上臺甲石
	옥신 屋身괴임	탑신 塔身괴임

16) 고유섭, 앞의 책, 2010, 91쪽

17) 장기인, 『國建築大系 VII, 石造』, 보성각, 1996; 박경식, 앞의 책, 2008

또한 기단의 상단은 중대석(혹은 신부)와 대관석으로 구분하였는데 중대석은 하단에서와 같이 부르고, 대관석은 갈석, 상대복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특히 중대석을 신부라고 하는 것은 상부기단의 중석으로서 신체부를 이루고 있다는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된다. 또한 탑신(塔身)의 신(身)과도 상통한다 생각된다.

한편 황수영이 고유섭의 유고를 정리하여 편찬한 『韓國塔婆의 研究』¹⁸⁾의 경우, 고유섭이 발표한 글이 주가 되는 『朝鮮塔婆의 研究』와 기단부에 대한 용어에서 두 사람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황수영의 『韓國塔婆의 研究』는 보다 현대 미술사에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가까운 것으로 황수영의 견해가 첨가된 것으로 보고, 본고에서는 ‘황수영의 명칭’이라고 하였다.

황수영은 기단부를 기단부 또는 탑기부(塔基部)라고 했다. 그의 명칭에 의하면 탑의 최하부에는 지반이 있고 그 위에 지대석이 자리한다. 그 위에 하대저석(下臺底石)¹⁹⁾이 있는데, 하대저석은 저대저석, 또는 하석(下石)이라고도 명명하였다. 하대중석은 하대중석 또는 저대중석이라고 하였으며 면석과 탱석(撐石), 우석(隅石)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우석을 탱주(撐柱)라고도 칭하였는데 우석은 모서리 기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버팀기둥이라는 뜻을 지닌 탱주는 잘못된 표현이다. 한편 황수영은 사이 기둥을 탱석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후대의 학자들이 우석과 우주를 같은 의미로 쓰고 우주와 탱주를 구분하여 탱주를 사이 기둥으로 칭한 것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대갑석은 하대갑석 또는 저대갑석(底臺甲石), 복석(覆石)이라고 명명하였는데, 복석이란 명칭은 상대갑석에도 동일하게 복석이라고 하였다. 하대갑석의 위에는 중석받침이 자리 잡는다. 이 중석받침을 몰딩이라고도 하였다. 석탑 상세도에는 중석받침이 하대갑석과 동일한 석재로 조출(彫出)되어 나타나 있다. 즉 하대갑석의 최상단에는 위의 중석을 받치는 괴임이나 받침, 혹은 몰딩²⁰⁾이 각형(角形) 또는 호형(弧形)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갑석의 윗부분에도 옥신(屋身, 혹은 塔身)괴임이 자리 잡고 있다. 황수영은 옥신괴임을 탑신괴임이라고도 명명하였으며 탑기부(기단부)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별석을 쓰는 옥신과 다르게, 상대갑석과 단일석으로 이루어지는 옥신괴임을 상대갑석의 일부로 여겼다.

중석받침의 위에는 상대중석이 자리 잡고 하대중석과 마찬가지로 면석, 탱석, 우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우석을 탱주라고 한 것은 현재적 입장에서 잘못된 표현이다.

상대중석의 위에는 상대갑석이 위치하고 상대갑석의 아랫부분에는 갑석부연이 나타난다. 이 부연의 한자를 황수영은 副緣, 김희경은 副椽²¹⁾, 박경식은 副椽이라고 하였는데²²⁾, 緣은 ‘가장자리’라는 의미이고, 椽은 ‘서까래’라는 의미여서 둘 다 나름의 타당함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나 두 번째 서까래라는 의미보다는 갑석의 가장자리라는 의미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목조건축의 처마에서 덧서까래는 부연(副椽)이라 하지 않고 부연(浮椽)이라고 한다.

2-2.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의 기단부 세부 명칭

일본학자인 스기야마 노부조는 『朝鮮の石塔』에서 한국석탑의 기단은 이단으로 중첩된 것으로 작도하고 이를 이성기단(二成基壇)이라 명명하였다. 단층인 경우는 단성기단(單成基壇)이라 명명하였고, 이층인 이성기단의 경우 하단을 하성기단(下成基壇), 상단을 상성기단(上成基壇)이라고 하였다.²³⁾ 한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단층기단, 이중기단이라 하고 이중기단의 하단을 하층기단, 상단을 상층기단이라 부르고 있으나 그 차이가 지니는 별다른 의미는 없다.

그는 상·하대갑석을 모두 개석(蓋石)이라고 명명하였고, 상·하대 중석을 우주, 탱주, 면석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칭하여 축부(軸部)라고 하였다. 또한, 최하단에 위치한 지대석과 하대저석을 구분하지 않고 하대저석만 표현하였고, 하대저석을 지복(地覆, ジフク)이라고 명명하였다. 일본의 건축용어사전에 의하면 지복이란 다리의 고란(高欄) 하단에 장착하는 횡재, 건물의 토대, 토지의 지질, 사람의 원래 성질이나 능력, 소질을 의미한다. 현재적 입장에서 갑석을 개석이라 하는 것은 의미의 전달이나 단어의 생경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난하다고 생각되지만, 축부와 지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색하다. 이처럼 일본의 축부는 한국에서는 중석이라 하고, 지복은 저석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간의 용어 의미상의 차이로 이해된다.

18) 고유섭, 『韓國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19) 장기인은 이 부분을 하대저석 혹은 저석, 대저석(臺底石)으로 명명하였다. (장기인, 앞의 책, 1996, 213쪽)

20) 고유섭, 앞의 책, 2010, 91쪽. 한편 일본서에서는 구리카타(刳形)이라고 한다.

21) 김희경, 앞의 책, 1982, 29쪽

22) 박경식, 앞의 책, 2008, 523쪽

23)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앞의 책, 1944, 17쪽에 있는 <朝鮮石塔各部名稱說明圖> 참조

2-3. 중국 정각형탑(亭閣型塔)의 기단부 세부 명칭²⁴⁾

7세기를 전후한 시기 중국에서는 실로 다양한 유형의 탑이 건립되었다. 즉, 누각식탑, 밀침식탑(密檐式塔), 정식탑(亭式塔, 亭閣型塔) 등을 비롯해 목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불탑이 건립되었다.²⁵⁾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정각형 불탑이다.

한국석탑과 달리 중국탑의 기단부는 탑기(塔基)라고 불리며 지하부와 지상부로 구분된다. 지하부에는 지궁(地宮)이 있고, 지상부는 기대(基臺)와 기좌(基座)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물론 기단부 위에 있는 탑신에는 감실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불상을 안치하고 있다. 또한 탑신 위에는 사모지붕 형태의 옥개를 이룬다.

중국고대건축에서 지하 기초 부분은 대부분 흙을 단단하게 다져서 구축하지만 탑은 독특하게 지하에 지궁(龍宮 또는 龍窟)이라는 사리함을 보관하는 공간을 둔다. 이는 중국의 제왕릉침(帝王陵寢)과 흡사하다. 물론 제왕릉침처럼 규모나 순장품이 방대하지는 않다. 지궁 내에는 석함(石函)을 하나 넣어 두는데 석함 내에는 함갑(函闌)이 층층이 겹쳐 있다. 돌이나 금, 은, 옥, 비취로 만든 작은 관곽(棺槨)을 넣어 두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지궁의 예로 서안 법문사 전탑의 지궁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는 지궁으로 내려가기 위한 계단과 돌로 된 문이 마련되어 있다.

지궁 위에는 탑의 기초로서 기단이 위치한다. 초기 탑의 기단은 몇 10cm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현존하는 당나라 이전의 탑인 북위 숭악사탑(嵩岳寺塔)과 수대 역성현(歷城縣) 신통사 사문탑(神通寺 四門塔), 불광사 조사탑(佛光寺 祖師塔)의 기단을 보면 초기 탑의 기단은 아주 낮고 간단하며 전석(磚石)으로 구축되었다.²⁶⁾ 어떤 탑의 기단은 높이가 10-20cm 밖에 안 되고 선명하지도 않는다. 서안 흥교사 현장탑(興教寺 玄奘塔)에서는 기단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수나라 시대에는 다소 적었던 기단이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탑의 기단부는 탑의 기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당대에는 탑을 더욱 상승감 있게 하기 위하여 탑 하단부에 높고 큰 기대(基臺)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의 예로는 서안 소안탑(小雁塔)과 대안탑(大雁塔)과 같은 정각식 탑, 서안 안읍 범주선사탑(泛舟禪師塔), 제남 역성 신통사호탑(神通寺虎塔)과 같은 다각

식 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단부의 발전은 기단부를 기대와 기좌 두 부분으로 선명하게 구분하였다. 기대란 초기의 탑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낮고 별다른 장식이 없는 기좌 부분을 말한다. 기좌는 당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한 부분으로 탑의 모든 부분 중에서 장엄이 가장 화려한 부분이다. 건축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탑신을 웅장하고 위엄 있게 만들었다. 특히 기좌는 변화과정에서 특히 요(遼), 금(金) 시기의 밀침식 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4. 이희봉의 기단부 명칭

이희봉은 불탑용어와 관련한 연구에서 인도 산치대탑을 예로 들며 기단이라는 명칭은 힌디 원어 ‘medhi’의 잘못된 번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²⁷⁾ 이를 영어권에서는 드럼(drum)이라고 한다. 그는 인도 초기 스투파의 하부 구조를 동북아시아 목조 건축의 기단이나 그리스 신전에서 기단과 같은 건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석탑 하부를 지칭하는 ‘기단’을 인도의 초기 스투파에 비추어 볼 때 모심을 위한 ‘대좌(臺座)’로 명명하기를 제안하였다. 그의 이러한 지적은 일리가 있고 특히 산치대탑 등 인도 초기탑에 있어서는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석탑의 기단을 대좌로 명명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든다. 한국의 석탑은 인도의 초기 스투파와 달리 목조건축적 요소가 다분하다. 현존하는 최초의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건축을 번안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석탑이 기단, 계단, 초석, 기둥, 벽, 내부 공간, 지붕돌 등 다양한 목조 건축적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기단부를 한 덩어리로 괴체화(塊體化)되어 있는 석조 미술품에서처럼 대좌로 명명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그간 기단부라 칭하였던 부분을 탑기부(塔基部)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3. 탑신부(塔身部)의 세부 명칭 고찰

탑신부는 탑의 몸체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층으로 탑신과 옥개받침, 옥개석(屋蓋石)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옥개석의 최상단에는 상층의 탑신을 받치는 괴임이

24) 羅哲文, 앞의 책, 1985, 54~59쪽; 張馭賢, 앞의 책, 2006; 박경식, 『한국석탑의 양식 기원』, 학연문화사, 2016

25) 박경식, 앞의 책, 2016, 26쪽

26) 박경식, 앞의 책, 2016, 78쪽

27) 이희봉, 앞의 논문, 2010.10, 182쪽; 이희봉, 앞의 논문, 2010, 56~57쪽

나 받침, 혹은 물덩이 각형(角形) 또는 호형(弧形)으로 조각되어 있다.

‘탑신’은 석탑의 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모서리 기둥인 우주(隅柱)와 그 사이에 있는 면석으로 이루어진다. 스기야마 노부조는 탑신을 축부라 명명하였고, 고유섭은 탑신, 황수영은 옥신(屋身)이라 명명하였다. 축부와 옥신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명칭이라 오히려 생경하다.

‘우주’는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초기석탑까지는 별도의 부재로 조영하지만 이후에는 단일석에 돌을 새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모각(模刻)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고려시대에 건립된 백제계 석탑은 우주와 면석을 별석으로 조영한 경우가 많다. 이 탑신의 우주는 일견 하면 최상단과 최하단의 폭이 같아 보이거나 위는 좁고 아래가 넓어 민흘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이를 배흘림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민흘림이라 하여야 한다.

‘옥개석’은 목조탑의 지붕을 석재로 형상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목조건축에는 처마의 아래에 긴 처마를 받쳐주는 공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탑에서는 내쌓기한 벽돌로 형상화하였으며, 또한 이를 석탑으로 변안하는 과정에서 옥개받침으로 간략히 표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⁸⁾ 또는, 신라석탑의 조형(祖形)이라고 생각되는 전탑에서 내쌓기한 벽돌을 형상화한 것이라 추정된다. 옥개석은 석탑의 조형미와 형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목조건축의 지붕을 변안하였으므로 낙수면과 추녀, 전각(轉角)의 반전(反轉), 처마, 귀마루인 우동(隅棟) 등이 표현되었다.²⁹⁾ 또한, 옥개석의 낙수면(落水面)³⁰⁾에서 빗물이 흘러 탑신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낙수홈을 옥개석 하부에 파거나 옥개석의 모서리인 전각부(轉角部)에 풍탁(혹은 風鈴)을 매달기 위해 풍탁공을 뚫는 경우도 많다.

3-1. 고유섭과 황수영의 탑신부 세부 명칭

고유섭은 탑신부에서 통상적으로 탑신으로 호칭되는 부분을 옥신(屋身) 또는 탑신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신벽(身壁)과 우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흔히 요즘 면석(面石)이라 하는 부분을 신벽이라 하였다.

옥신 위에는 옥개받침이 자리하고 있다. 고유섭은

옥개받침을 방한석(方限石)³¹⁾ 또는 지송(持送, もちおくり)이라고 명명하였다. 일본인 학자들은 방한석을 층급방한(層級方限, 方限り: ほうぎり)이라고 한다. 세키노 다다시는 지송은 신라의 특유한 전탑에서 비롯된 석탑 조영수법으로 보았고, 반면 고유섭은 목조건축의 두공포작(斗栱包作)의 수법을 와전(瓦塼)으로 변안한 후 석탑에 적용한 과도기적 형식의 ‘지송(持送) 또는 방한(方限)’수법에서 나온 명칭이다³²⁾ 라고 하였다. 이 경우 고유섭은 일본인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들 지송과 방한석, 층급방한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소멸된 상태이다.

표 2. 한국 석탑 탑신부 세부명칭 비교

고유섭, 1944이전		황수영(고유섭), 1948, 을유문화사		본고의 명칭, 2017	
하단 下壇	신벽 身壁	옥신 屋身	우주 隅柱	탑신 塔身	면석 面石
	우주 隅柱		옥신(탑신) 屋身(塔身)		우주 隅柱
상단 上壇	층급방한 層級方限, 혹은 지송 持送	탑신부 塔身部	옥석 屋石받침	탑신부 塔身部	감실 龕室
	전각 轉角		전각 轉角		민흘림
	낙수면 落水面		낙수면 落水面		모각 模刻
	옥표면 屋表面		양각(우동) 榻角(隅棟)		옥개 屋蓋받침
					전각 轉角
		옥표면 屋表面	반전 反轉	우동 隅棟, 혹은 내림마루, 합각선	
			낙수홈(물끊기)		

31) 고유섭, 『又玄 高裕燮 全集1, 朝鮮美術史上』, 열화당, 2010, 197~198쪽, 미륵사지석탑을 설명하면서, ‘석주와 석벽 위에 枋楣石이 놓여, 그 위에 다시 小間橫石壁이 놓이고, 그 위에 세 단의 방한석이 놓여 옥석을 받들고 있다.’라 하였다. 여기서 枋楣石은 옥개받침 아래 부분의 壁石을 뜻하고 方限石은 층급방한, 즉 屋蓋받침을 말한다.

32) 고유섭, 앞의 책, 0000년, 198쪽

28) 고유섭, 앞의 책, 2010, 82~86쪽

29) 천득염, 앞의 책, 2000

30) 이 낙수면을 고유섭은 屋表面이라 하였다.

한편 황수영은 탑신부의 세부명칭을 크게 옥신(屋身)과 옥개(屋蓋)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옥신은 우주와 면석으로 이루어지며, 또 이 옥신을 탑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옥신과 탑신을 혼용함은 고유섭과 유사하다.

옥개석의 하부에는 단일석 또는 별석으로 된 석재가 조그만 여러 층단을 이루며 옥개석을 받치는데, 그는 이를 옥석(屋石)받침이라고 명명하였다. 황수영은 일본 학자나 고유섭의 명칭에 나타난 층급방한이나 지송이라고 하지 않았다. 황수영과 김희경이 옥석받침이라 명명한 부분을 장기인은 층급받침, 박경식을 비롯한 후대의 학자들은 옥개받침 또는 층급받침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한국석탑 연구에서는 각 층의 옥개를 받치는 부분의 명칭으로 '옥개받침'과 '층급받침'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나중에 이러한 명칭이 고정화되었다.

3-2.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의 탑신부 세부 명칭

스기야마 노부조는 옥개(屋蓋)를 옥근(屋根, やね)와 현지송(軒持送, のきもちおくり)으로 나누었다. 야네(屋根)는 옥개의 상부면인 낙수면이고 노키모치오쿠리(軒持送) 또는 층급방한(層級方限)은 옥개받침에 해당한다. 이를 현재 불교미술학자들은 옥개석, 낙수면, 전각(轉角), 우동(隅棟), 옥개받침(혹은 층급받침)으로 세분하여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屋根은 흔히 지붕을 지칭하는 말인데, 軒持送과 層級方限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持送은 과거에 일본에서 한자 단어를 혼독하여 읽을 때 히라가나를 중간에 쓰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持送(持(ち)送(り))'일 것으로 보인다. '持送(持ち送り)(もちおくり, 받아 보내다)'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건축용어 사전에서 주로 서양 석조건축에서 쓰이고 있으며 벽면이나 기둥에서 돌출되어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석조부재, 즉 'corbel'로 정의하고 있다.³³⁾ 또한, 일본에서는 목구조와 관련하여 보아지 또는 익공을 持送이라고 한다. 따라서 軒持送이 옥개의 아래 층급받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층급방한은 어떤 의미인가? 우선 方(かた)는 4각, 즉 네 방향을 의미하고 限(きり)는 지역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방한(方限)(ほうぎり)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흔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가장자리, 행정구역의 구분, 학군의 구분이라는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층급방한은 여러 단을 이루어 지붕 부분을 아래에서 받치는 의미의 층급과 방형 건축물의 네모난 모습을 칭하는 방한이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 이루어진 복합명사이다. 결국 이 '軒持送'과 '層級方限'이라는 명칭은 한국에서는 현재 쓰여지지 않은 단어로 옥개받침 혹은 층급받침을 뜻하는 단어이다.

한편 고유섭은 층급방한(또는 현지송) 위 옥개의 상부 경사진 면을 낙수면, 혹은 옥표면(屋表面)으로 칭하였고, 네 귀퉁이 끝 부분에는 곡선의 전각(轉角)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낙수면과 낙수면이 만나는 모서리를 양각(槲角) 또는 우동(隅棟)이라 하였고, 양각과 옥석받침 사이의 날카로운 이음새를 전각으로 칭했다. 한편 황수영과 김희경은 특히 양각을 칭할 때, '추녀 양(槲)'을 써서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황수영과 달리 장기인은 '우리를 양(仰)'으로 하였다. 또한 박경식은 합각선(合角線)과 우동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황수영과 김희경의 쓰임처럼 양각(槲角) 또는 우동(隅棟)이 적절하다 생각된다.

이처럼 탑신부의 세부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목조건축의 명칭에서 유래된 어휘들과 석탑의 모습을 수사적으로 표현을 함에 있어 아직 통용되지 않은 명칭을 새롭게 명명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상륜부(相輪部)의 세부 명칭 고찰

상륜부는 불탑의 상단에 위치하여 탑의 인지성을 부각시키는 요소로서 주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상륜부는 한자로 서로 상(相)에 바퀴 룬(輪)으로 통상적으로 불탑의 노반과 노반 윗부분의 구성요소를 통칭하는 말이다. 상륜의 '相'은 사물을 보고 다스린다는 의미로써 판단과 교육의 지표를 뜻하고 불교에서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징하며, '輪'은 윤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부처의 가르침이 막힘없이 계속됨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특히 불국사의 다보탑에서는 상륜부가 석가여래와 삼승(三承)의 보살도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³⁴⁾ 즉 권황수는 사층 옥개석의 상면에 불보살계를 상징하는 연화를 돌렸으며 그 위에 복발과 양화를 둔 부도탑 형식으로서 석가여래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로써 석가여

33) <http://ejje.weblio.jp/content/持ち送り>

34) 권황수, 「불국사 다보탑에 표현된 一承法界圖와 무영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30권 7호, p.119.(2014.07)

래 상주설법보소(常住說法寶所)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연화, 노반, 복발, 양화는 석가여래를 상징하고 아래의 두 보륜은 보살계위를 나타내며 맨 위의 보륜은 불계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석탑에 있어 상륜부는 석탑정상에 올라가 장엄장식의 기능을 하지만 초기 인도탑은 상륜부가 산간(傘竿)과 산개(傘蓋)만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즉 산치불탑 이후 복발형 탑이 상대적으로 복발부분이 작아지고 간다라지역에서 봉헌용 소탑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기단부와 상륜부가 더욱 중첩되고 장엄화된 형식으로 변한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간다라식 불탑형식이 나중에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기존의 도교건축이나 목조누각형 탑의 정상부에 자리하게 되었고 상륜으로 형식화된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³⁵⁾

그러나 그간 한국미술사에서 상륜과 상륜부는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된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상륜부는 석탑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위 상(上)을 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상(相)을 쓰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륜부에 노반과 복발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반에서 맨 꼭대기까지 이르는 부분을 상륜부라 하고 있음에 비하여 노반과 복발을 제외한 부분을 상륜으로 구분하여야³⁶⁾ 함을 다소 소홀히 한 것이다.

4-1. 고유섭과 황수영의 상륜부 명칭

고유섭은 상륜부를 상륜이라고만 명명하였으나 황수영은 진흥 「섭과 비슷하게 ‘탑두부와 상륜’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황수영이 상륜이라 명명한 부분은 노반(露盤)과 복발(覆鉢)을 제외한 탑 상부 구성요소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노반과 복발을 포함한 상륜부 전체는 상륜부라 하지 않고 탑두부(塔頭部)라고 명명하였다.

상륜 혹은 상륜부는 맨 하단에 노반이 위치하고 복발이 올라간 후 그 위에 양화(仰花) 또는 청화(淸花)라고 호칭되는 꽃 모양 부재가 올라간다. 고유섭은 이를 양화 또는 청화라고 명명하였고, 황수영은 양화라고만 하였다. 양화의 윗부분에는 보륜(寶輪 또는 구륜(九輪))이라고 호칭되는 부재가 올라간다. 보륜과 함께 구륜

을 쓴 것 또한 고유섭이다. 민속학에서는 구륜을 구천(九天)이나 구이(九夷)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동북아 샤머니즘에서 구(九)는 구천과 구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천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9개의 천체를 말하기 때문에 구륜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추정한다. 삼국시대에 미륵사지석탑, 황룡사지구층목탑과 같은 구층탑이 많이 조성된 것도 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4-2. 진홍섭과 김희경의 상륜부 구분

진홍섭은 일반적인 상륜부와는 달리 의미 있는 구분을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상륜부를 탑두부(塔頭部)라 하였고 이 탑두부 안에 노반과 복발, 그리고 그 위에 상륜부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진홍섭이 말하는 상륜부란 양화(仰花)에서 보륜(寶輪), 보개(寶蓋), 수연(水烟), 용차(龍車), 보주(寶珠)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애매한 상륜부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 좋은 명칭이고 구분이 아닌가 한다.

또한 김희경도 역시 상륜부를 구분함에 있어 진홍섭과 같이 탑두부라 하고 이 탑두부 안에 노반과 복발, 그리고 그 위에 상륜부가 아닌 상륜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물론 상륜은 양화에서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까지를 말한다.

4-3. 이희봉의 상륜부 명칭에 대한 제안

이희봉은 상륜부는 순전히 일본인이 창작한 명백한 오류 용어이며 한국탑의 탑신 위 전체를 상륜부라 지칭하는 것은 보편적 관행으로 통하나 원래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용어라고 하였다. 그는 상륜은 바퀴 모양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탑의 상륜부는 노반, 양화, 복발, 수연, 보주와 같이 바퀴모양이 아닌 육면체, 구(球) 등 다양한 입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탑신 위 전체를 상륜부로 호칭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⁷⁾

또한, 그는 불탑의 상단을 상륜부라 칭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며, 상륜부라는 한자어는 양산³⁸⁾만을 지칭하며 인도 초기 불탑의 원반형인 단일 혹은 층층의 양산은 한국불탑 상단의 원반 마구리에 꽃이 장식된 보륜과 최상단의 보개로 변형됐다고 여겼다. 즉 진리의 바퀴인 법륜과 스투파 위에 씌운 양산은 별개의

35) 김성우, 「극동지역불탑형의 시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83; 임영배·천득엽·박익수, 「한국과 중국의 탑과형식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5호, 1992

36) 황수영과 진홍섭은 이를 구분하고 있다.

37) 이희봉, 앞의 논문, 2010.10; 이희봉, 앞의 논문, 2010

38) 양산이라는 단어는 불경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산(日傘)이라 칭하는 것이 좋겠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초기 중국 경전 번역시대에 고귀한 인물에 씌워주던 양산의 범어 차트라(Chattrā)를 모양이 비슷하여 오해해 법륜의 바퀴라는 뜻의 범어 차크라(Chakra, 輪)로 잘못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더불어 상륜에서 ‘상(相)’은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우니 ‘상(上)’ 또는 ‘두(頭)’를 사용하여 상륜부를 탑상부 또는 탑두부로 명명하자고 제안하였다.³⁹⁾ 이처럼 상(相)이 불가에서 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이러한 이회봉의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4. 상륜부에 대한 고찰

한국미술사에서 아직 상륜부(相輪部)라는 명칭에서 왜 상(相)이라 하였는지 그 의미를 밝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즉 언제 누가 상륜이라 하였는지, 기능을 우선하는 물리적 형태로 일산(日傘)인지, 아니면 상징적 의미로서 법륜(法輪)인지 또한 분명치 않다. 이회봉은 법륜의 바퀴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물리적 일산 만으로서는 불교적 의미가 부족하여 그 형태에 불교적 의미를 더하여 법륜의 가치를 지닌 상륜(相輪)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당연히 중국인 번역자와 일본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도를 담아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그간 미술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보륜의 의미가 단순한 기능의 일산을 넘어 법륜으로서 종교적 의미가 함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능과 의미로서 상륜이라는 명칭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사전(字典)을 보면 상(相)은 ‘서로 相’에 한정하지 않고 ‘모양 相’, ‘바탕 상’, ‘불 상’, ‘도울 상’, ‘다스릴 상’, ‘용모 상’, ‘인도자 상’, ‘가신 상’, ‘재상 상’, ‘방아타령 상’ 등등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 특히 붓다는 ‘相이 相이 아닐 때 여래를 보리라’고 했다. 붓다는 사람들이 형상에 집착할까 봐 오히려 이를 크게 경계했다. 그래서 붓다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다. ‘모양 相’, ‘바탕 相’, ‘용모 相’ 등으로 그 뜻을 한정한다고 보아도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상륜의 상은 ‘사물을 보고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판단과 교육의 지표’를 뜻하며 불교에서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징한다. 특히 윤(輪)은 ‘윤회’의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됨’을 의미하며 ‘반복된 생의 잉태’를 의미한다⁴⁰⁾라고 하였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생소한 의미로서 ‘상(相)은 평두(平頭) 이하의 반원구상(半圓球狀) 복발형지분묘(覆鉢形之墳墓)’를 뜻하기도 한다.⁴¹⁾ 여기에서 상은 복발형의 분묘로 부담 없이 사용하였던 불탑의 복발을 말한다. 이 반원구상의 분묘구조물 위에 평두가 있고 다시 그 위에 윤이 있다. 윤은 윤반형(輪盤形) 다중구조물이다. 평두는 사각형 난간 구조물로 수화(受花)나 청화(請花)를 뜻한다. 보편적으로 그간 평두를 난간이 둘러진 평평한 복발 정상부로 이해하였지 수화와 청화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해석도 있다는⁴²⁾ 점을 이해하면 그 해석은 다양해진다.

즉, 相에는 이렇게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법륜인가 아니면 일산인가를 확정하기 어렵다. 물론 처음은 당연히 존귀한 상징으로서 일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고 나중에 불교적 의미가 첨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특히 윤(輪)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바퀴라는 의미 이외에 둥근 것을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시어나 불경에 일륜(日輪), 월륜(月輪), 일륜(一輪) 등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와 달, 그리고 한 바퀴를 뜻한다.

어느 나라의 불탑에서나 상륜은 불탑을 일반건축물과 달리 구분하며, 모시는 존재의 품격을 결정하는 권위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수의 경전에서는 원륜(圓輪)이 높이 솟아 표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상륜부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전에는 보통 부처님은 보병까지 쓸 수 있고, 아래 수위에 있는 자는 쓸 수 없다 하였다. 아라한은 상륜의 층수를 제한하는데 4중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불환과(不還果)는 3중 이상을 금지하고 일래과(一來果)는 2중 이상을 금지하였고 예류과(預流果)는 1중 이상을 금지하였다.⁴³⁾

그렇다면 석탑 정상부 어디에서부터 상륜부, 혹은 상륜이라 하여야 할까? 상륜은 노반에서 시작되며 그 위에 복발 그리고 이어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의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홍섭과 김희경은 이 탑두부 안에 노반과 복발, 그리고 그 위에 상륜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⁴⁴⁾ 즉 그는 상륜은 소위

39) 이회봉, 앞의 논문, 2010, 63쪽

40) 천득염,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2013

41) 『無垢淨光大陀羅尼經』 類聚名物考 권 27

42) 『無垢淨光大陀羅尼經』 類聚名物考 권 27

43) 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18, 摩訶僧祇律 33

44) 김희경, 앞의 책, 1982, 29쪽

원반형이 중첩된 그 이상을 상륜으로 구분 하였다. 어찌 보면 향후 진흥섭의 견해처럼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결합하여 이해하였던 노반과 복발을 분리하여 부르는 것에 대한 인지적 저항은 있을 수 있다.

상륜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각각 나름의 형상과 의미를 지닌다. 이슬을 받는 그릇인 노반은 옥개석 상면에 놓이는 방형부재로서 승로반의 줄임말이며 석탑이 신성한 조형물임을 상징한다. 또한 탑신부와 상륜부의 경계가 되며 경사면의 옥개석 위에 상륜부를 받듯하게 올리도록 한다. 생명의 탄생 혹은 죽은 자의 집과 하늘을 의미하며 우주산의 기원인 극락정도를 상징하는 복발은 노반 위에 반구형의 형태로 조성되며 인도 산치탑에서 유래하였다. 부처나 보살과 같은 수행자만 앉을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암시하는 양화(仰花)는 늘 귀하고 깨끗한 곳임을 상징한다. 전륜성왕을 뜻하는 보륜은 불법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표 3. 한국 석탑 상륜부 세부명칭 비교

고유섭, 1944이전	황수영(고유섭), 1948, 을유문화사	본고의 명칭, 2017
노반 露盤	노반 露盤	탑두부 露盤
복발 覆鉢	복발 覆鉢	탑두부 覆鉢
양화 仰花		탑두부 仰花
청화 淸花		혹은 寶輪
보륜 寶輪	상륜 相輪	보륜 寶輪
구륜 九輪		보개 寶蓋
보개 寶蓋	중심 主는 찰(간) 柱	수연 水烟
수연 水烟	찰(간) 柱	용차 龍車
용차 龍車		상륜부 相輪部
보주 寶珠	보주 寶珠	상륜부 寶珠
		찰간 刹竿
		혹은 刹柱
		산간 傘竿

고귀함을 뜻하는 보개는 덮는다는 의미로서 소중한 보륜을 위에서 덮어 보관하여 석탑이 귀하고 청정한 지

역임을 상징한다. 물이나 불을 뜻하는 수연(水煙)은 불법을 사바세계에 두루 비춘다는 의미가 있다. 원구형의 장식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진 위대한 힘의 상징인 용차(龍車)와 오염되지 않는 여의주나 마니주를 상징하는 보주(寶珠)는 득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⁴⁵⁾

상륜부에서 또 다른 논점이 있다⁴⁶⁾. 하나는 보륜(寶輪)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찰주(刹柱, 擦柱)이다. 양화 위로는 전륜성왕(轉輪聖王)⁴⁷⁾을 상징하는 바퀴모양의 부재인 보륜이 3개, 5개 혹은 9개 놓인다.⁴⁸⁾ 그간 한국 미술사에서는 보륜은 불법을 전파한다는 전륜(轉輪)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보륜을 별 부담 없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승엄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인도불탑이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산(傘)이 윤(輪)으로 바뀐 것이며 본래의 양산 기능이 약화되고 원륜(圓輪), 반개(盤蓋) 등을 거쳐 전륜(혹은 輪相, 바퀴모양)으로 번역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⁴⁹⁾ 하지만 바퀴가 아닌 원이 주는 모습과 복발 위를 덮는 산(傘)이 귀한 공간을 덮어 위요하고 그 의미가 널리 전하도록 하는 실질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결국 이는 전륜이고 보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산(日傘)은 산개(傘蓋)를 거쳐 나중에는 윤개(輪蓋)가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보륜으로 부르거나 윤개 혹은 산개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보륜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제까지 미술사에서는 석탑의 꼭대기에 있는 날카롭고 긴 철제의 기둥을 찰주(刹柱, 擦柱) 또는 찰간(刹竿), 산간(傘竿)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어왔다. 찰주란 뾰족하고 긴 철제로 된 가는 기둥, 혹은 나무나 쇠로 만든 깃대모양의 지주로 탑의 마지막 층의 옥개석에 꽂혀 상륜부를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찰주는 목조건축의 심주(心柱)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심주는 1층부터 올라가나 찰주는 최상층 옥개석에서부터 상륜에 한정한다. 상륜부 부재들의 중앙에는 구멍이 나있어

45)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1998, 163쪽; 윤창숙, 「韓國 塔婆 相輪部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46) 이희봉, 앞의 논문, 2010

47) 인도신화에서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러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제왕

48) 네팔 Bodhanath의 경우에는 13개가 올라가기도 한다.

49) 이희봉, 앞의 논문, 2010

찰주가 관통한다. 이희봉은 擦柱는 한자를 잘못 쓴 것이라 지적 하였다. 그러나 고유섭은 상륜의 중심적 기능을 擦柱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륵사지의 석재 심주까지도 찰주라 하였으니⁵⁰⁾ 이를 분명히 할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럽다.

字典에 의하면 ‘刹柱란 탑 꼭대기의 상륜을 이르는 말로 刹竿과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찰간이란 절 앞에 세우는 깃대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刹은 사찰(절)이며 동시에 불탑이란 의미와 함께 탑의 깃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⁵¹⁾ 찰주와 찰간은 덕이 높은 승려를 시방(十方)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웠는데 나무나 쇠로 만들었다. 刹은 범어의 Ksetra의 음역어 찰다라(刹多羅)를 줄인 말이다. 즉 사문(沙門)이 불법을 깨달으면 기를 세워 이를 널리 알리는데 그 기를 다는 깃대를 뜻하는 말이다. 또한 원래 간(竿)이란 ‘장대, 낚싯대, 대쪽, /횃대/화살대/그루’ 등을 뜻하는 말이다. ‘매달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매단 것’이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⁵²⁾ 산간은 일산이나 우산, 양산 등의 가운데 뾰족 솟은 부분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擦은 ‘홀다, 비비다, 문지르다, 반박하다, 접근하다, 겁내다, 풀밭을 걷다’는 등의 뜻을 가진 말이다. 그런데 불탑 등 상륜부의 한 가운데에 꽂혀 있는 심주를 말할 때 擦柱라고도 한다. 한편 찰흙으로 만든 작은 탑을 擦擦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찰의 훈 가운데 하나가 ‘작은 탑’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³⁾ 다만 이러한 예가 전혀 없어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刹이 범어의 음역이듯 擦擦 또한 아마 음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찰주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확실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찰주(刹柱)나 찰간(刹竿)이 무방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상륜부 또는 상륜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좋을까? 중국에서는 상륜부를 탑정(塔頂)이라고 하였는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륜이라는 명칭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황수영과 진홍섭, 김희경이 말한 탑두부, 이희봉이 제안한 탑상부, 탑두부도 적절한 명칭이라 생각한다. 탑기부, 탑신부에 대

응하여 고려하면 탑두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지 않나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용어는 철저한 검증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5. 맺음말

1. 우리나라에서 조영된 수많은 석탑은 중층누각형의 목조건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석탑의 세부 명칭은 목조건축 용어를 자연스럽게 차용하고, 50여 개의 어려운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들은 아직 명확한 개념 파악이나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대부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고찰과 아울러 이를 공문화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별 문제 없이 기왕에 쓰고 있는 용어를 구태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차제에 이를 새롭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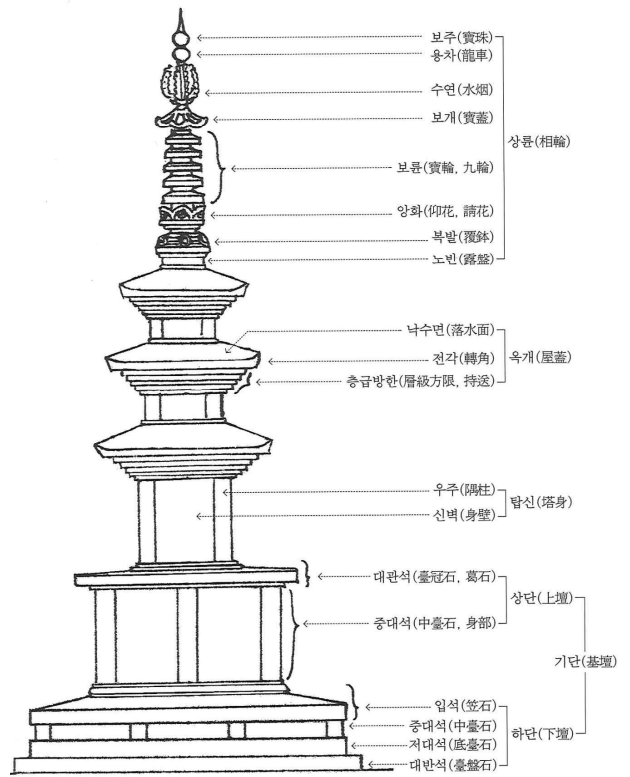


그림 1. 석탑 세부명칭도 (석탑의 일반적인 형태를 고유섭이 정교하게 그리고 각 세부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한국탑 연구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그림이다.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上』, 열화당, 1948, 317쪽)

2. 현재까지 석탑 기반부의 명칭은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기반부를 크게 하단 혹은 하층기단(또는 하성기

50) 고유섭, 앞의 책, 2010, 197쪽.
 51)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9; 『教學 大漢韓辭典』, 教學社, 2003
 52) 위의 두 사전에 의한.
 53) 위의 두 사전에 의한.

임으로 나누어진다. 고유섭은 옥개받침을 方限石 또는 持送이라고 하였다. 일본인 학자들은 層級方限이라고 하였는데 현대적 입장에서 쓰이지 않고 사라진 용어이다. 따라서 옥개받침이나 층급받침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이 옥개받침은 목조건축의 공포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석탑으로 변안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표현되었고 또한 전탑에서 내쌓기한 벽돌을 형상화한 것이라 추정된다.

5. 옥개석은 석탑의 조형미와 형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목조건축의 지붕을 석조로 변안하였으므로 낙수면과 추녀, 轉角과 反轉, 처마, 귀마루인 隅棟 등이 쓰여 지고 있다. 이 우동을 合角線, 혹은 角이라 하였으나 우동이 무방하다. 또한 옥개석의 落水面을 屋蓋表面이라고도 하였는데 낙수면이나 옥개면이 적합하다.

6. 그간 불탑의 명칭에서 상륜과 상륜부는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된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상륜부는 석탑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上을 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相을 쓰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上과 相에 대한 명쾌한 의미해석이 불명하다면 塔頭部(혹은 塔上部)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또한, 상륜부에 노반과 복발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반에서 맨 꼭대기까지 이르는 부분을 상륜부라 한다면 양화에서 보주까지를 상륜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제안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학계에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용어가 정리되고 학문적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다만 본고는 이를 위해서 제안하는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이를 계기로 장차 학계의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동의어와 유의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衫山信三, 『朝鮮の石塔』, 彰國社, 1944
2. 고유섭, 『韓國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3. 고유섭, 『又玄 高裕燮 全集1, 朝鮮美術史 上』, 열화당, 2010

4. 고유섭, 『又玄 高裕燮 全集 3,4, 朝鮮塔婆의 研究 上, 下』, 열화당, 2010
5. 고유섭, 『韓國塔婆의 研究』, 을유문화사, 1948
6. 羅哲文, 『中國古塔』, 中國青年出版社, 1985
7. 張馭寰,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8.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9
9. 『教學 大漢韓辭典』, 教學社, 2003
10. 『無垢淨光大陀羅尼經』 類聚名物考 권 27
11. 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18, 摩訶僧祇律 33
12. 현장, 『대당서역기』, 김규현 역, 글로벌콘텐츠, 2013
13. 김희경, 『한국의 탑』, 열화당, 1982
14. 장기인, 『國建築大系 VII, 石造』, 보성각, 1996
15. 박경식, 『석조미술의 꽃 석가탑과 다보탑』, 한길아트, 1998
16.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17. 박경식, 『한국석탑의 양식 기원』, 학연문화사, 2016
18. 윤창숙, 『문화재해설 : 탑파』, 백산출판사, 1991
19. 천득염,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20. 강우방, 신용철, 『한국미의 재발견 5, 탑』, 솔, 2003
21. 천득염,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2013
22. 천득염, 「백제계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23. 윤창숙, 「韓國 塔婆 相輪部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993
24. 이강근, 「又玄 高裕燮의 ‘朝鮮建築美術史草稿’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2006
25. 정해두·장석하, 「석탑 탑구(塔區)의 역할 및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9권, 1호, 2010
26. 이희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2010
27. 이희봉, 「탑 용어에 대한 근본적 재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10
28. 권황수, 「불국사 다보탑에 표현된 一承法界圖와 무영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30권 7호, 2014
29. 김성우, 「극동지역불탑형의 시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83
30. 임영배·천득염·박익수, 「한국과 중국의 탑파형식에

72 논문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8 no5,
1992

31. <http://ejje.weblio.jp/content/持ち送り>

접수(2018. 4. 4)

게재확정(2018. 5. 12)